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3호 [루게 제24566호] 주체103(2014)년 6월 2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가 동행하였다.

은 나라 아이들의 천아버지가 되시어 뜨거운 사랑과 은덕을 베풀어 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또다시 맞이한 평양애육원의 일군들, 교양원들은 솟구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6.1절을 맞이한 원아들이 보고싶어 왔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을 받아안은 원아들이 만경대유희장에도 가고 옥류관에서 국수도 먹었으며 일군들과 주변사람들의 관심속에 운동회도 하면서 남부럽지 않게 명절을 보내고있다는 보고를 만족하게 들어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애육원의 유희실에 들어서시자 원아들이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달려와 안기었다.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면 애육원의 교양원들이 친부모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식 한명을 키우는데 오만자루의 품이 든다고 하는데 교양원들이 술한 원아들을 맡아 수고가 많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을 잘 키워 앞으로 이들속에서 이름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 군인도 나오게 영웅도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금 당에서 대동강반에 현대적인 육아원, 애육원을 일떠세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다음해에는 새로 건설된 애육원에서 6.1절을 쇠게 될것

넘어지겠다고, 덤비지 말라고 달래이시며 품을 파고드는 아이들의 불을 어루만져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며 놀았느냐, 맛있는것을 먹었느냐 다정히 물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손가락을 꼬으며 자랑하는 원아들의 귀여운 모습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아이들이 명절을 잘 쇠고있다니 기쁘다고, 하나같이 밝게 웃는것을 보니 마음이 즐겁다고 말씀하시었다.

천아버지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자식

들마냥 노래를 불러드리는 원아들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박수도 쳐주시었다.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저녁밥을 먹는 원아들에게 어느 음식이 맛있는가 물어주시며 아이들의 구미에 맞게 같은 음식감을 가지고도 여러가지로 해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명절음식차림표를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잘 먹었구만, 원아들이 좋아했다니 정말

기쁘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에서 보내준 여러가지 음식감들을 어떻게 가공하여 먹이는가도 알아보시고 꿀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먹이는 방법도 알려주시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자면 영양학적으로 잘 먹이고 키르기운동을 비롯한 체력단련도 정상적으로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아야 온 나라가 밝아진다고 하시면서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이라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애육원의 일군들과 교양원들이 맡겨진 본분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 주시고 한생을 다 바쳐 사랑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대를 이어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시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속섬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속섬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었다.

황병서동지, 최태부동지, 최룡해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속섬을 돌아보시면서 개발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룡라도, 양각도와 함께 평양의 자랑으로 되고있는 속섬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특색있게 개발하자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이곳을 과학기술 전당이 자리잡은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키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 발전에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발전의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를 가까운 앞날에 세계적인 과학기술



강국, 인재강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 지식보급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있다고 하시면서 당에서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게 속섬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기로 결심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속섬에 건설하자고 하는 과학기술전당은 인류가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자료를 수자화하여 보존관리하는 종합적인 자료구축기지인 동시에

각이한 자료들을 망을 통하여 임의로 볼수 있게 하며 정보공유, 정보교류도 할수 있게 하는 다기능화된 과학기술봉사기지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전당에는 실내 및 야외 과학기술전시장도 꾸러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기술 전당을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사상이 완벽하게 반영된 건축물,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대학생들을 수자화하여 보존관리하는 것 지식을 배우는 정든 집으로

훌륭히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과학기술전당을 건축미학적으로, 조형예술적으로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함으로써 국보적인 건축물, 멋쟁이건축물, 세계적인 건축물로 일떠세우자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과학 기술전당을 일떠세우면서 속섬과 연결된 충성의 다리를 개건보수하고 백년후에도 끄떡없게 호안공사를 진행하며 특색있는 원림설계에 의한 식수사업과 교통문제를 풀기

그러시면서 속섬개발사업은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것 만큼 온 나라의 관심속에 진행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속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 자체보장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주시었다.

위한 사업을 다같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평양의 판문에 자리잡고있는 속섬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일떠세우면 대동강의 풍치가 더욱 아름다와질것이며 평양시의 면모가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랑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명당자리라고, 속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나라가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만족해하시었다.

위한 사업을 다같이 밀고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시었다.

평양의 판문에 자리잡고있는 속섬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일떠세우면 대동강의 풍치가 더욱 아름다와질것이며 평양시의 면모가 달라질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동강랑안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명당자리라고, 속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나라가 세계를 앞서나가게 하는 또 하나의 도약대로 될것이라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다고 만족해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속섬개발사업은 나라의 전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것 만큼 온 나라의 관심속에 진행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속섬에 건설되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 자체보장대책 등을 일일이 세워주시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보시였다.

황병서동지, 최태복동지, 최룡해동지,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일떠서고있는 물놀이장들에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물미끄럼대를 설치할것을 받기하시고 그 과업을 인민군대에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에서는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현대적인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짧은 기간에 제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물미끄럼대를 보시면서 제작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하였는데 잘 만들었다고, 정말 멋있다고, 원가를 적게 들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만든것이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제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미끄럼대 제작을 통해서도 제힘을 믿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실증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급강하물미끄럼대가 당이 바라는 기준에서 제작되였다고 하시면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물놀이장에 먼저 설치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야외물놀이장에 현대적인 급강하물미끄럼대를 설치해주면 야영생들이 무척 좋아할것이라고, 해수욕을 할 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6월말까지 설치하여 그곳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리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당의 구상과 의도를 관철하는데서 기수, 돌격대의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전국각지에 물놀이장들이 일떠서고있다고 하시면서

급강하물미끄럼대를 비롯한 각종 물놀이 기제들을 많이 생산하여 보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가지 질 좋은 물놀이 기제들을 만들자면 설계를 다양하고 특색있게 하며 원자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속설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선군의 총대를 어깨에 짊어주고 백두의 행군길을 이어나가자

##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해산 출발

【해산 6월 1일밤 조선중앙통신】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업무를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가 세차게 분출되고 있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시작되었다.

전군의 모범적인 군인들로 무어진 답사행군대는 혁명진통학살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력사와 선군조선의 만년제보인 주체의 혁명전통이 뜨겁게 어려있는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들을 답사하게 된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 출발모임이 1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인민무력부 일군들과 답사행군대원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를 비롯한 구호판들이 모임 장소에 세워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모임장소에 입장하였다.

모임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모임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인민군위원회 위원장 엄향철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싸움준비완성과 군인생활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편향부대 지휘관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조직해



주신데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진행하도록 하여주시었다. 여기에는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이 백두의 혁명전통을 피조기로 이어 시련의 광풍이 사납게 휘몰아치고

세상천지가 열백번 뒤집힌다 해도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신념의 혁명가로 자라는 우리들처럼 행복하고 최고사령관동지의 숭고한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총련 청년전위의 깊은는 삶 두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역세게 준비 시키며 승리의 신심드높이 군력강화에서 일대 비약을 안아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리정표로 쫓겨있다. 들을 조선혁명의 넓으며 생명의 백

모든 답사행군대원들은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칼날을 역세게 세워 오늘의 행군길을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이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모임은 끝났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기발이 수여되었다.

총실성과 억척만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 원수들을 처물리친 백철불굴의 투쟁정신, 혁명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작관주의정신,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뜨거운 동지애, 간진 생활기풍과 학습기풍을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행군과정에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하며 학습과 숙영 등 모든 생활을 철저히 항일유격대식으로 찬신하게 진행하여 누구나 오늘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으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것이다.

보고자는 모든 인민군군인들이 백두의 후손, 혁명의 계승자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역세게 이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어 군관판인 박철민, 안명진, 사관 박명진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답사행군을 통하여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투쟁업적을 심장깊이 체득하며 백두의 칼날을 역세게 세워 오늘의 행군길을 최후승리의 진군길로 이어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노래주악과 합창으로 모임은 끝났다.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기발이 수여되었다.

출발구령이 내리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대오 앞에 높이 모신 답사행군대원들은 최고사령관기, 당기, 공화국기, 답사행군대기발을 휘날리며 백두산으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혁명군의 노래》, 《유격대행진곡》을 비롯한 혁명가요들을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대오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펼쳐 나날 백두산혁명군대의 철의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넘어졌다.

향광도와 해산시인의 책임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선렬들의 넓이 어린 혁명의 무기를 역세게 틀어쥐고 백두의 행군길을 앞장서서 곳곳이 이어나가는 군인답사대원들을 열렬히 환송하였다.

### 행복의 요람에 넘쳐나는 어버이사랑

한없이 따사로운 후대사랑으로 강성조선의 미래를 꽃피워가려는 우리 당의 은총속에 6.1국제아동절을 맞아 행복의 요람들마다에 어린이들의 기쁨이 차넘쳤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떠받들며 제일 좋은것을 선물로 안겨주는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깃든 물고기와 과일, 현대적인 생활품 등이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의 원아들과 가정속에서, 가정유치원, 창광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었다.

태양의 촉복받은 온 나라 아이들과 인민들의 심금을 울려 주며 펼쳐진 감동깊은 화폭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신 사회주의대가정에 꽃피는 후대중시사상, 미래사랑의 숭고한 정화이다.

철따라 알알이 잘 익은 과일들과 영양가 높은 갖가지 식료품들의 약품들을 보내주기도

명필을 맞춘 아이들을 위해 또 다시 베푸는 다심하고 한량없는 은정에 원아들과 어린이들은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와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어린 물고기와 첫 물도마도를 받아안은 육아원, 애육원 원아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의 격정의 목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왔다.

일군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은 동해포구에 현대적인 수산사업소를 일떠세워주시고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킬수 있게 되었다고 그러도 만족하시다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눈물을 적시었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과일들과 여러가지 종류의 향기로운 접들을 받아안고 좋아라 웃고 떠드는 김정숙악아소, 경상유치

원, 창광유치원 아이들의 얼굴마다에도 태양의 빛을 받아 활짝 피어난 선군동지의 웃음꽃이 만발하였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며 교양원들과 보육원, 학부형들은 이 나라 천만부모의 정을 합친것보다 더 뜨겁고 위대한 품,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훌륭히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창창할 미래를 확신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원아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영양관리를 더 잘하여 후대들을 강성조선의 역세 기둥감들로 튼튼히 키워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주조 여러 나라 의외대표들,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해외의 국손님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모임에서는 김정숙 녀성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촉복속에 6.1국제아동절을 맞은 온 나라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녀성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의외대표들,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어린이들과 녀성들을 비롯한 해외의 국손님들, 조국에 체류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여기에 초대되었다.

모임에서는 김정숙 녀성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촉복속에 6.1국제아동절을 맞은 온 나라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녀성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김정숙 녀성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촉복속에 6.1국제아동절을 맞은 온 나라 어린이들과 어린이들, 녀성들이 모임을 참가하였다.

### 6.1국제아동절 64돐기념 친선련환모임 진행

이러 실화무대 및 예술소품 공연이 펼쳐졌다. 물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을 찾으며 어린이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뜨거운 후대사랑의 정열이 넘쳐있는 어린이들의 대해같은 은정을 전하는 출연자들의 감격에 넘친 이야기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무대에는 노래와 춤 《원수님

외국어어린이들의 중창 《원수님께 드리자》와 평양애육원 어린이들의 중창이야기 《김정은원수님 고맙습니다》는 관람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다채로운 체육유희오락 경기들이 진행되었다. 자그만것들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에 출현한 한파선수들은 미래의 기둥감들로 역세게 자라나고있는 자기들의 석색한 기상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여주었다. 씨름장에서 승부를 겨루는 씨로 쫓겨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행진에 넘친 모습은 모범군 위위를 한층 고조시켰다.

우리 어린이들과 여러 나라 어린이들은 공안고 어머니의 손 잡고 달리기, 공차놀이, 놀이감 따기, 바줄당기기 등을 즐겁게 진행하며 친선의 정을 한껏 나누었다. 경기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함께 어울려 춤도 추고 유희시설들도 리용하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조선중앙통신】

### 사랑받는 인민보안원들

아래단위 일군인 전경호동무와 인민보안원들이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다. 몇몇전 전경호동무는 자체로 공우유를 생산하여 부청명을 지나가는 운전사들에게 공급해줄것을 발기하였다. 그의 세기는 인민보안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리철남, 전경호동무를 비롯한 인민보안원들은 잠시간을 리용하

수리에 필요한 공구와 부속품들도 갖추어놓고 모래구이장지로 만들어놓아 운전사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드는 길에서 인민보안원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그들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의 목소리는 두터운 책의 갈피들에 감동깊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수리에 필요한 공구와 부속품들도 갖추어놓고 모래구이장지로 만들어놓아 운전사들의 편의를 보장해주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드는 길에서 인민보안원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그들에 대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의 목소리는 두터운 책의 갈피들에 감동깊이 새겨져있다. 본사기자

### 우리 나라의 위무상과 알제리의 무상 회담

블러블가담은 동 위무상회담이 참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리수용의 무상과 알제리 라말라 알제리인민공화국 위무상의 회담이 5월 31일 알제리의무성청사에서 있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상대측에서 위무성 총서기, 아시아 및 오세안주 총국장, 공보총국장, 의례총국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대표단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상대측에서 위무성 총서기, 아시아 및 오세안주 총국장, 공보총국장, 의례총국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 우리 학생들 국제청소년연주가 및 작곡가콩쿨 《음악예술》에서 우수한 성적 쟁취

우리 나라 김학현, 최금성학생들이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청소년연주가 및 작곡가콩쿨 《음악예술》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재능있는 청소년음악가들을 찾아내며 세계 여러 나라를사이의 문화적접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콩쿨은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나라와 중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일본,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에서 온 340여명이 참가하였다. 차이콥스키명칭 모스크바국립음악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김학현, 최금성학생들은 24일 기악안сам블부문에 출연하였다. 그들은 목관악기들인 호프트와 오보에로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곡목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심사원들과 관중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메카식에서는 높은 예술적향을 보여준 우리 학생들이 기악안сам블부문에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음악전문가들은 조선학생들이 전문연주자들 못지 않은 훌륭한 연주수준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의 목관중주발전전진망이 창창한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후대들을 위해 바쳐온 30여년 모란봉구역 비파고급중학교 출판순두무

조금이나마 보답할 열의로 가슴을 불태웠다. 그는 학생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존경을 가슴깊이 간직하도록 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이 나날 그가 학생들의 정치사상교양에 필요한 교구교양자료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판물들을 만드느라 기용인 사색의 낮과 밤은 그 열마인지 모른다. 그는 수업은 물론 명절들과 중요요제 때마다 혁명적적지들을 통한 교양사업으로 모든 학생들이 오직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는 세 세대들로 자라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과 함께 지방에 다녀올 때에는 그곳에 깃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을 심장깊이 간직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꼭꼭 진행하곤 하였다. 모란봉구역 비파1동 41인민반에서 사는 한 전사자가족과의 상봉모임 등을 통해서도 그는 학생들에게 어떤 때부터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지니고 선렬들의 숭고한 넋을 곳곳이

이어나가도록 하였다.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예술소품공연을 준비해가지고 평양화력발전원 합기업소 로동계급을 찾아가곤 하는것도, 매우 계획에 따라 배우와 흥구, 추구를 비롯한 다양한 체육활동을 진행하고있었던 것도 다 출판순두무의 응심깊은 마음에서 출발한것이다. 출판순두무가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준비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해 기용인 사색의 나날들을 짚자면 헤아릴수 없다.

그가 지금 리용하고있는 가정 연락수첩도 그는 단순한 연락수첩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학생들의 사상정신상태와 학과실력수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적어두곤 하였는데 이것은 학부형들과의 면회를 보다 밀접하게 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요양에 큰 도움이 되었던것이다. 출판순두무의 교육교양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당에서는 교원영예훈장 제1급을 수여하도록 하였으며 사랑의 선물들도 안겨주었다. 오산도 출판순두무는 교원은 직업적혁명가라는 긍지를 안고 후대교육사업에서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준



#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은 멸망을 앞둔자들의 단말마적발악

## 허물어지고 있는 미국의 패권적지위

현시대의 가장 팽목한 한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아마 정세전문가라면 대부분이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패권적지위를 잃고있는것이라고 대답할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다른 나라들뿐아니라 미국내에서도 울려나오고있다.  
이미 미국의 지정학전문가이며 패권주의의실용자인 조지프스미트(조지프스미트)는 미국의 패권이 끝났다고 주장하였다.  
얼마전 미국잡지 《포린 폴리시》도 미국의 국제적지위가 돌이킬수 없는 손상을 입고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미국대통령인 오바마도 세계가 다극화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허물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력사가 자기 발전의 궤도를 타고 전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힘이 함부로 통하지 않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들을 망탕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힘을 시위하는 첫 실험장으로 되었고 이라크가 그 다음번 대상으로 되었다. 미국은 거지강상태라고 생각하면 유언도 무시하였다.  
한 의인은 《이라크전쟁으로 미국의 전황이 되살아났다. 이라크전쟁은 세계무대에서 다시 시작된 미국의 전황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보도하였다.  
정세분석가들속에서는 미국의 지명공격을 자주 받는 나라는 필연코 그의 전쟁대상으로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 미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타격할수있으며 저들은 그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극도로 오만한 《특권적지위》의 깊이를 자라게 되었다. 미지배층은 세계에서 미국만이 옳고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정치적기준》을 가지고있으며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옳고그름의 잣대를 가져다주는 침략과 간섭행위와 《정》의 위헌적이라고 떠들며 정당화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무시

하고 그 나라들의 명도를 침범하여 무인기공습, 《테러본자제포작전》과 같은 군사적행위들을 공공연히 저질렀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패권주의의실용적 동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속전속결로 끝낼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했던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의 힘은 점차 진해져갔다. 왜냐하면 《반테러전》의 명목밑에 벌려놓은 그 전쟁들은 야구방망이로 파리를 잡겠다는것과 같은 우둔한 미치광이짓이었기 때문이다. 미지배층은 반미항쟁세력의 기습공격에 맞아죽은 자국민들의 시체우에 삽자기를 꽂아주는 꼴아꼴만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허물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력사가 자기 발전의 궤도를 타고 전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힘이 함부로 통하지 않고있다. 21세기에 들어선 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전쟁들을 망탕 일으켰다. 아프가니스탄이 미국이 힘을 시위하는 첫 실험장으로 되었고 이라크가 그 다음번 대상으로 되었다. 미국은 거지강상태라고 생각하면 유언도 무시하였다.  
한 의인은 《이라크전쟁으로 미국의 전황이 되살아났다. 이라크전쟁은 세계무대에서 다시 시작된 미국의 전황으로 특징지어진다.》라고 보도하였다.  
정세분석가들속에서는 미국의 지명공격을 자주 받는 나라는 필연코 그의 전쟁대상으로 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 과정에 미당국자들의 머릿속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나라든지 타격할수있으며 저들은 그 어떤 범죄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극도로 오만한 《특권적지위》의 깊이를 자라게 되었다. 미지배층은 세계에서 미국만이 옳고그름을 판단할수 있는 《정치적기준》을 가지고있으며 다른 나라 인민들에게 옳고그름의 잣대를 가져다주는 침략과 간섭행위와 《정》의 위헌적이라고 떠들며 정당화하였다. 다른 나라들의 주권을 무시

어나고있다. 이와 함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그 어떤 위협공감과 침략행위에도 단호히 대처해나가고있다.  
미국의 군사적패권에 우려를 품고있는 나라들사이의 협력도 강화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사이의 합동군사연습들이 자주 벌어지고있다.  
얼마전에는 중화인민공화국사훈련 《해상협력-2014》가 진행되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두 나라는 매년에도 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로씨야로부터 현대적인 전투비행기를 구입하려 하고있다.  
로씨야 역시 중국에 현대적인 전투장비들을 넘겨줄 의향을 표시하고있다.  
중국과 로씨야는 손을 맞잡고 미국의 아시아《예군행》전략에 공동으로 맞서나갈 의지를 표명하고있다.  
미국의 동맹국, 동반자로서라고 하는 나라들도 미국의 요구와 지시에 불복해나서고있다. 오래동안 미국의 동반자로 있었던 에스토니아는 오늘에 와서 미국보다 로씨야와 더 가까운 지내려 하고있다. 이스라엘은 중동평화를 《중재자》로 나선 미국의 지시에 코방귀를 퍼며 엇서나가고있다. 프랑스는 로미판게가 적대적으로 변하여가는 속에서 로씨야에 대한 합관관계를 계속 내밀것이라고 하고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우기를 비롯하여 주요국제문제들을 제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질질 밀리우고있다.  
미국은 세계정세를 판타지 놀이대로 생각하고 있다. 2007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주재시장위기는 미국금융구조,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낱알이 드러냈다. 이 위기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번져져 자본주의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미국을 비롯하여 여러 서방나라들은 아직도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이 과정에 미국이 주도하던 8개국수치회담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지금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는 20개국수치회담과 브릭스들이 세계경제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다. 미국달러지배의 국제금융통화

제도가 매우 위험하다는것을 깨달은 많은 나라들이 지역 및 민족화해들을 무역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있다.  
로씨야와 중국은 두 나라사이의 대외무역에서 루블과 인민폐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최근 여러 외신들은 올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누르고 세계 제1위를 차지할 전망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세력중심들이 형성되고있으며 따라서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도 재분할되고있다.  
미국은 패권적지위를 어떻게 해서나 유지해보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여러 대국들에 대한 포위환을 형성하려고 날뛰는 한편 환태평양경제권대협정을 내놓고 이 지역을 미국이 지배하는 자유무역지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의 기도대로 되지 않고있다. 미국은 절대대로 잃고있는 패권적지위를 되찾을수 없다.  
막대한 빚더미에 올라앉은 미국은 울며 겨자먹기로 군사비를 삭감하고있다. 망하는 집안에 싸움이 잦다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군사예산을 비롯하여 국내문제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당파싸움을 벌리고있다. 다른 나라들의 국가수반들에 대한 협박행위를 빼지아 벌린 죄행이라나 미국은 국제적으로 몰려우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맹국들도 용납하려 하지 않고있다. 현실은 이렇다.  
미국은 시대의 변화발전을 똑바로 보고 처신을 바로하여야 한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지배와 패권을 찬성하지 않는다. 미국은 고대로마제국이 나 파소도이릴란트 등 패권국자들의 운명에서 웅장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  
세계의 절대다수 나라들은 지배와 패권이 아니라 자주를, 주권침해를 아니라 주권존중을 요구한다.  
시대발전은 바로 이 요구에 따라 계속 전진하게 될것이다.

## 조선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장본인

여러 나라 정당, 단체 준렬히 규탄  
로르니아와 스르비아 정당들이 인터넷홈페이지에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하는 글을 올렸다.  
로르니아사회주의당은 최근 인터넷홈페이지 《주제사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증시전략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지역을 행각하면서 저들의 목적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살성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다.  
스르비아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얼마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대통령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적자들이 추추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태평양증시전략을 합리화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같은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진상상태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다른이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펼쳐나선 조선반도의 그 주된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회담에 즉시 응해야하야 할것이라고 같은 날 강조하였다.  
같은 날 로르니아사회주의정당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트르플로르》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은 최절정에 달하고있으며 조선반도는 현재 전쟁이 터질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은 《연례국무》이라는 간판에 남조선당국과 야합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

였으며 수많은 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면서 정세를 계단식으로 격화시키고있다. 미국대통령이 조선반도 주변지역을 행각하면서 노리는 목적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살성동을 더욱 강화하려는 데 있다.  
스르비아의 세 유고슬라비아공산당은 얼마전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미국대통령은 아시아지역에서 정치적자들이 추추하는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아시아태평양증시전략을 합리화해보려고 책동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같은 오늘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진상상태로 몰아가고있는 장본인은 다른이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라고 하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펼쳐나선 조선반도의 그 주된 방대한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려고 획책하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회담에 즉시 응해야하야 할것이라고 같은 날 강조하였다.  
같은 날 로르니아사회주의정당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 《트르플로르》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책은 최절정에 달하고있으며 조선반도는 현재 전쟁이 터질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은 《연례국무》이라는 간판에 남조선당국과 야합하여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

## 모든 적대적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경고

판문점 우리측 위수경무장이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최근 적야행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된 판문점에서 미군측이 여러가지 불순한 도발성행위를 보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측 위수경무장이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지난 5월 27일과 28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판문점 조선측 위수경무장이 미군측이 최근 판문점에서 도발행위를 강행하고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판문점구역에서 벌어지고있는 모든 적대적행위들을 걷어치울것을 미군측에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판문점 조선측 위수경무장은 최근 미군측이 예민한 판문점

## 정탐배들은 징벌을 면치 못한다

의 아프가니스탄행각을 계기로 백악관은 저들이 뻔 세 명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없지 않은 몰리다 다시 주어진것을 포함하여 미중앙정보국 《지부책임자》의 이름이 공개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것은 누구에게나 뻔하기때문이다.  
미중앙정보국 요원들이 사건 국지지에서 대부분 신분을 숨긴 채 변성명하고 주재국의 주요인사 접촉 등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벌이고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정보수집은 고사하고 목격자를 할수 없게 된다. 유일한 출로는 발각된 즉시 출항을 놓는 길밖에 없다. 하기에 30여년전 제 백악관보안관들의 실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백악관의 고위인물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부랴부랴 카블주재 《지부책임자》의 이름을

오늘의 세계  
원본사료의 변형 위험을 막기 위하여

마을을 돌아보면서 사회봉사 및 운수하부구조건설을 빨리 진척시킬데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대규모의 콘크리트해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과 관련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 지역방문과정에 우주로켓도발사장건설과 관련한 협의회도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2015년부터 국가 및 국제적계획에 따라서 다른 사명의 우주기구들을 발사할수 있도록 우주로켓도발사장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 이와 함께 협의의 회담에 로씨야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는 싸야노-수연계 국가수력발전소 4호발전기를 가동시키는 문제도 논의하였다.  
아무르주방문의 마감일정은 로씨야대통령은 국립동몽보호후를 방문하였는데 아무르주역에서 사는 범에 대한 연구 및 보존정책계획도 로해하였다.  
부연대통령의 이번 아무르주방문은 로씨야가 원동지역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큰 힘을 넣고 있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실증이다.  
그러나 원동지역발전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얼마전 부연대통령은 한 회의에서 정부가 원동개발사업을 잘하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우리모두가 원동개발이 선차적방향이라고 말하고있지만 솔직히 말하여 이 사업이 매우 급르게 진행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실지로 로씨야정부로서는 아직까지 원동지역발전을 위한 선차적인 투자계획목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계획들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조차 정해져있지 않다 고 한다. 또한 새로운 국가계획에 이 지역을 하부구조건설을 포함하여 일련의 투자주요소들이 반

영되어있지 않고 원동주민들을 위한 저당대부의 특혜조건들이 작성되어있지 않다. 실제로 2016-2025년 《구원책》의 사회경제발전계획이 작성되지 않고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면 부연대통령은 원동개발사업 진척정도에 대한 문제를 제출할것을 원동발전상에게 직접 지시하였다.  
한편 로씨야수상 메드베레브는 원동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이 지역에서 투자자들에게 사조조건을 개선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얼마전에 진행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의 협조에 관한 회의에서 원동과 싸야노에 관한 협의회에서 원동과 싸야노에 투자할 사람들을 비롯한 국내외투자자들을 위한 조건을 급격히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나열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로씨야동부연방주들의 투자 매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적장벽을 현실적으로 낮추고 우리 나라에서 고도기술성업을 비롯하여 각이한 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시기에 들어와 로씨야는 원동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대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동지역에서의 자연재해의 후과를 가시고 국내외투자자를 늘이는 등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외신들은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는데서 원동지역발전을 위한 관건적인 고리로 보고있는 정부의 관심속에 이 지역의 경제발전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진할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본사기자 신 경 섭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군의 《반테러전》의 주요전장으로 되고있는 아프가니스탄을 불이행 하였다. 항쟁세력의 끊임없는 공격에 미군장병들의 안전도 시시각각 위협을 받고있는 곳에 오바마가 보란듯이 나타났다는 그 날 스톱보일수 있는 사태가 발생하였기때문이다. 그보다도 문제는 백악관이 이 나라를 행각하는 오바마보좌관들의 이름을 언론기관에 배포하면서 그 보도자료에 카블주재 미중앙정보국 고위관리의(카블주재 《지부책임자》)의 진술을 실어 공개한것이다. 이것은 즉시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15명의 미국고위관리의 명단은 맨 처음 대통령을 수행하는 기자들에게 제공되었고 다음은 백악관우편물품을 통해 다른 기자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전하면서 제 백악관보안관들의 실수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백악관의 고위인물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깨닫고 부랴부랴 카블주재 《지부책임자》의 이름을

원경보호 노력  
중국에서 환경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중국국무원 관청은 최근 2014-2015년 에베르티기질약 및 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방안을 발표하였다. 대기오염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둔 이 방안에는 에베르티기질 약하고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고있다.  
온바로게이트 발사  
로씨야가 지난 5월 23일 블레즈크우주발사장에서 운반로켓 《로즈프》를 쏘아올렸다.  
3개의 군사위성을 탑재한 운반로켓은 예정된 궤도에 성과

가지를 의의와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또한 조선대외문화연락회에서도 보낸 축전이 소개되었다. 이어 기념강연이 있었다. 결성식에서는 오시자와 후미도시와 가와무라 구니히코가 대표위원들로, 아리마 준야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결성식에서는 일본 각계와 조선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운동에 펼쳐나설데 대한 호소문이 채택되었다.  
3개의 국내선 위성을 쏘아올릴것을 계획하고있다. 현재 《다르미트》와 《사르프스트》, 《파르프스트》로 명명된 위성들의 발사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해군함동군사훈련 진행  
중화인민공화국사훈련 《해상협력-2014》가 지난 5월 20일 중국 상해에서 시작되었다.  
훈련에는 14척의 각종 함선과 2척의 잠수함, 9대의 비행기와 함께집중수, 특전대 등이 동원되었다. 중로 쌍방이 혼성조를 무어 7일동안 벌린 이번 훈련에서는 해상동작, 반잠수함공, 탐지된 선박추출연습이 진행되었다.